

겨울 끝자락, 봄의 문턱에서 곡성을 만나다

섬진강 따라 걷고, 기차마을에서 추억 만들고, 고찰에서 마음을 비우다

꽃이 만개하기 직전의 시간은 오히려 더 또렷하다.

2월 말에서 3월, 전남 곡성군은 축제의 열기 대신 계절이 바뀌는 숨결로 여행객을 맞는다.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천천히 걸으며 머물기 좋은 시기다.

■ 기차마을에서 여는 초봄의 하루

곡성 여행은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시작된다. 증기기관차가 지나가고, 레일바이크가 철길 위를 달린다. 체험과 정원이 어우러진 공간은 계절에 따라 서로 다른 분위기를 보여준다.

5월 장미가 절정을 이루는 때와 달리, 초봄의 정원은 한층 정돈된 모습이다. 봄비지 않는 동선 덕분에 시설을 비교적 여유 있게 이용할 수 있고, 정원 길을 따라 걷는 발걸음도 한결 가볍다.

화려한 장식 대신 공간 본연의 분위기가 드러나는 시기다.

■ 섬진강 따라 걷는 시간

기차마을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 압록 유원지에 이르면 섬진강이 시야를 연다. 강물은 잔잔히 흐르고, 강변은 한층 넓어 보인다.

2월에서 3월로 이어지는 시기에 매화와 개나리가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해 겨



울과 봄이 교차하는 풍경을 만든다. 바람은 아직 차갑지만 햇살은 부드럽워진다.

강가 벤치에 잠시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여행이 된다.

■ 고찰에서 느끼는 고요한 정취

여정의 끝은 산자락에 자리한 도립사와 태안사에서 이어진다. 두 사찰은 계곡과 숲을 배경으로 고요한 분위기를 전한다.

일이 무성하지 않은 숲은 오히려 풍경을 또렷하게 드러낸다. 발걸음 소리와 바람의 흐름이 선명하다. 마당 한편에 서서 산 능선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루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초봄의 사찰은 화려하지 않지만 깊이가 있다.

■ 꽃이 피기 전, 곡성을 걷다

곡성군은 5월 장미축제를 앞두고 관광지 환경정비와 시설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축제가 시작되기 전의 곡성은 또 다른 매력을 지닌다. 봄비지 않는 공간에서 자연을 가까이하고, 철길과 물길, 산길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기에 좋은 시기다.

속도를 낮출수록 선풍해지는 여행, 초봄의 곡성은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

곡성/이정수 기자

무안군, 신도시 주민 농업·농촌 체험 교육생 모집

3~6월 회산백련지서 전통장 만들기 체험 운영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6년 「신도시 주민 농업·농촌 체험 활동」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촌진흥청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된다. 신도시 주민이 농업·농촌을 직접 체험하며 지역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우리군 농업·농촌 체험 및 전통장 만들기 체험'으로, 3월부터 6월 까지 기간 중 2회에 걸쳐 일로읍 회산백련지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공알메주를 활용해 전통간장과 된장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모집 인원은 2개 반 총 40명으로 남·여·오용 등 신도시 주민 가운데 농업·농

촌 체험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2월 27일까지 팩스(061-450-5136) 또는 이메일(miru529@korea.kr)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생활지원팀(☎ 061-450-4058)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시린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이 지역 농업과 전통 식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시와 농촌이 상호 이해를 넓히는 장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구례군,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 안전교육 실시

마을회관 직접 방문... 농업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 교육 강화

전남 구례군은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3월 2일부터 '농업기계 순회 안전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마을별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접수된 마을을 대상으로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가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교육한다. 현장에서는 영상 자료와 교육 교재를 활용해 농업인이 이해하기

쉽게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

교육 내용은 ▲농업기계 도로 주행 시 교통법규 준수사항 ▲야간 운행 안전 수칙 ▲등화 장치 및 안전표지 부착 기준 ▲농업기계 사고 사례 분석과 예방 대책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과 사전 점검 방법도 함께 안내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농업기계 교통사고는 도로 주행

중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고, 안전장비 미부착과 부주의 운전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이번 교육에서는 기본 안전 수칙 준수와 사전 점검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강조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기계 사고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을 단위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없는 안전한 영농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 접수와 문의는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061-780-8073)로 하면 된다.

구례/한정호 기자

진도 김, 친환경 국제표준 인증(ASC-MSC 해조류/CoC) 취득

지속 가능한 친환경 어업 인증,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 체계적으로 관리

진도군에서 생산되는 명품 진도 김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 김 산업'을 위한 국제표준 인증인 ASC-MSC 해조류, CoC 인증을 취득했다.

ASC는 2010년에 세계자연기금(WWF)과 '네덜란드 지속 가능한 무역(IDH)'이 비영리 국제기구로 설립한 양식관리 협회에서 해양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인증 제도이며, MSC는 지속 가능한 자연산 어업을 인증하는 국제 표준으로, 수산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어획된 수산물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CoC 인증은 ASC-MSC 인증 제품을 가공, 유통,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인증 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해당 인증 마크를 확인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투명하게 관리된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해양 환경을 보전하는 데 이바지하는 가치 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



특히 ESG와 윤리적 소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ASC-MSC 인증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모두 갖춘 소비 선택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진도군수는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진도 김의 청정수산물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판로 개척과 국내 판매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전국 최대 김 위판고를 달성해 진

도군 김 산업이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할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이번에 취득한 김 관련 인증과 더불어, 2개소에 전복에 대한 친환경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하는 등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제표준 인증을 확대하는 데 선도적으로 나서며 다양한 품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도/오재영 기자

순천시, '수출 날개' 달아주고 '핵심 인재' 딱 잡는다

물류비 지원 한도 확대, 장기 재직 근로자 50만원 장려금 지급

순천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수출항만 선적비 지원 사업'과 장기 재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를 지원하는 '장기재직 근로자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고급리·고물가·보호무역 강화 등 복합 위기로 고전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 손통을 띄워주기 위해 순천시는 올해 수출물류비와 인력 유지 지원에 총 2억 5천 만 원(수출항만 선적비 지원 사업에 1억 5천 만 원, 장기 재직 근로자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수출 확대 지원과 인력난 해소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들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해택을 확대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에 예상될 정도로 신청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수출항만 선적비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이 지출한 물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장기 재직 근로자 지원은 관내 제

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순천 시민에게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장기 근무 유도에 지역 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참여 및 지원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신청장산업과 산단개발팀(061-749-441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영 여건 악화로 수출과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이번 지원 사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물류비 부담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영광군, 귀농인 대상 보조사업 신청 27일까지 모집 연장

영광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귀농지원 분야 보조사업" 신청 기간을 2월 2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귀농인의 농업 기반 조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 창업농 지원사업 ▲영광에서 살아보기 수료자 주거 임차료 지원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영광군으로 전입한 귀농인 및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로 세부 지원 기준과 자격 요건은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욱)는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은 지역 농업의 활력과 직결된다"며 "이번 모집 연장을 통해 관심있는 귀농인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350-4993, 5574)으로 하면 된다.

영광/이현식 기자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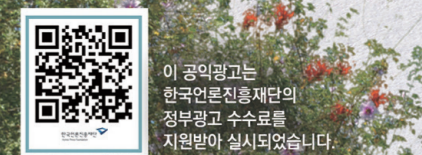
이 작품을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지금 찾고 있는 것일까요?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강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헛살 같은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일까
기업 스펀지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을
마음이 편해진다
및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평화적인 훨씬 강하다는 것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비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은 언제나 우연치

색감처럼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알리고 싶은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자칫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
있는 건데
더 크게 웃을 것
우어도 보는 것.
만드
잠시
평범한 것은
가난한 사람,
사람이 되면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